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53호 (2016년 1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경상남도 서부청사 전경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서부청사 개청, 역사의 획을 긋다.
- 서부대개발 올해 날개 단다.
- 경남도, 서울에 대학생 기숙사 세운다. 부지 매입
-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연찬회 개최
- 경남도, 공동주택 재능기부단 운영 등 눈에 띄는 건축시책 펼친다.
- 경남도, 국토교통부 선정 2015년 도로정비 전국 최우수기관
- 경남, 「국내 로봇산업 메카」로 변신 시작!
- 경남도, 2015년 하반기 하수관로 점검완료
- 경남도, 전국 최초 지방기록원 건립 본격 추진
- 2015년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 눈에 띄네!
-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개발사업 추진

- 거제 고현항 새롭게 태어난다.

■ 지식정보 13

- '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 국토교통부, 고급 국가공간정보 3억건 무상개방
-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 88올림픽 고속도,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
-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 전자입찰제,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에 기여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0

■ 신기술 정보 26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27

■ 기술인 나눔 정보 28

서부청사 개청, 역사의 획을 긋다

- ▶ 지난 12월 17일 개청식에 홍준표 도지사 비롯한 도민 등 5천여 명 참석
- ▶ 경남의 새로운 성장엔진...경남도 제2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지난 12월 17일 서부청사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최구식 서부부지사, 김윤근 도의회의장과 도의원, 오태완 정무특별보좌관,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18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언론인 대표, 서부지역 대학총장, 서남부발전협의회 회원 등 도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서부청사 규모

【이전규모】

- ▶ 실 국 : 서부권개발본부(49), 농정국(90) 환경산림국(81명)
- ▶ 직속기관 : 인재개발원(37), 보건환경연구원(71)
- ※ 총 330여명 ※진주시 보건소(130)

서부청사의 연면적은 29,842㎡로 창원청사 면적의 약 83% 정도이며, 실험동과 숙소동이 별도 건물로 사용된다.

【서부청사 규모】

- ▶ 창원청사(35,867㎡, 10,868평)의 83%
- ▶ 서부청사의 대지면적 : 54,806㎡(16,607평)
- ▶ 연면적 29,843㎡(9,043평)(지하1~지상8층)
- ▶ 본관(지하1층/지상8층), 실험동(지하1/지상2) 숙소동(지상2)

◆ 사회 통합

서부청사 개청은 진주를 포함한 서부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간의 심리적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경상남도가 다함께 공생 발전하는 사회통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서부청사 개청은 경남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쇄신과 서부경남 성장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서부시대 완성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자료 : 도 서부청사운영과(O55-211-6052)

서부대개발 올해 날개 단다.

- ▶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서부대개발 기틀 마련
- ▶ 남부내륙철도, 진주부흥프로젝트 서부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경남도는 서부대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서부청사 개청을 완료하고 2016년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 남부내륙철도 착공

건설구간은 김천 ~ 거제까지 170.9km이나 운행은 서울 또는 수서에서 거제까지이며 고속화 철도이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이 사업은 2012년 6월 환경부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 지난 12월 22일 추진 6년만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말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연간 75만 명 정도 관광객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승강기 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14. 9~'17. 8까지 3년간 총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창승강기밸리 내 입주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one-stop 종합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향노화 산업 육성

「핵심 IP 산업화 촉진 플랫폼 개발사업」 및 「바이오향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향노화바이오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개발(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인력양성 등을 위한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과 「기업지원 지역주력사업」 등 4개 사업에 5년간 157억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향노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 혁신도시 활성화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서부경남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동시에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초전신도심 개발

진주시 초전동 일원 415천㎡ 부지를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경남개발공사와 지난 '14. 8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부대개발, 경남미래 50년에 매진

경상남도는 혁신도시의 완성, 향노화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리산 관광특구 조성, 등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단지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부대개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서부대개발과(O55-211-6113)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연찬회 개최

▶ 지난 12월 18일 창원서 개최, 공무원, 건설관련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 참석

경남도는 지난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건설 산업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도내 건설사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5년도 지역건설산업 발전 연찬회」를 시·군 건설 담당 공무원과 도내 건설사,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풀만 호텔(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업체 8개사와 개인 부문 2명에게 ‘2015년도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하고, ‘2016년도 건설 관련 주요시책’ 설명, 국토연구원 박정은 책임연구원의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2015년도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건설사’ 수상대상은 대림토건(주), 대지종합건설(주), 삼보종합건설(주), 삼우기초개발(주), 강진건설(주), (주)오감, 상일토건(주), 아이원이엔지(주)이며 개인 부문은 미래시스템창호(주) 대표 전기운, 삼보종합건설(주) 이승민 부장이다.

이날 참석한 이채건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을 강조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증대,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개선 추진,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권장 등 지역 건설업체 일감확보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3)

경남도, 공동주택 재능기부단 운영 등 눈에 띄는 건축시책 펼친다.

▶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건축질서 확립 등 타시도 정책과 차별화

경남도는 올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구성·운영’, ‘건축관계자 지도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등 각종 주택시책사업을 펼쳐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비의무 관리대상)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시공분야 등의 건축전문가와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위험요소 점검,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자문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재능기부단은 올해 2월에 건축 및 주택관리 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반영 하는 등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및 대형 건축공사장 지도강화’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건축질서 확립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내에 개설된 건축사사무소(646개소)에 대하여 사무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실제 사무소 운영 및 자격대여 여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운영을 예방하고, 대형 건축공사장(70개소)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준수 시공 여부와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사의 부실시공 및 공사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현황 등 기초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과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목표 및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재능기부단 구성·운영’, ‘건축관계자 지도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등 건축분야 신규시책의 빈틈 없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O55-211-4312)

경남도, 국토교통부 선정 2015년 도로정비 전국 최우수기관

▶ 기관표창 수상 및 최우수기관 포상금 1억 3천만 원 지원 받아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5년 도로정비평가에서 2014년 우수에 이어 2015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도로정비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경남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 까지 전국 16개시도의 지방도 위임국도 등에 대한 도로정비실적 현장점검과 시도의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서면심사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남도가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내 국도 1,528km를 비롯해 지방도 2,160km, 시·군도 6,584km에 대하여 교량정비, 배수로 정비, 포장도 보수, 노건정비, 안전시설 등을 정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또한, 도내를 찾는 관광객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사업, 명절 대비 지방도로환경정비계획 수립시행 등 적극적인 도로행정을 추진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경남도가 지방도부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최우수기관 포상금 1억3천만 원을 받는다.

도로정비평가는 여름철 태풍 등으로 파손된 도로와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 교통사고위험 사전제거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도는 18개 시·군에 대한 자체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포트홀, 도로침하 등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자체점검 평가결과 정비실적이 우수한 거제시, 의령군 등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자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하였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경남도가 도로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이며, 2016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로과(O55-211-2983)

경남, 「국내 로봇산업 메카」로 변신 시작!

- ▶ 세계 최초 로봇테마파크! 국내 최대 로봇 인프라 착공
- ▶ 마산지역 「미래형 스마트 로봇도시」로 육성

경남도는 지난 12월 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조성사업 현장에서 (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착공식(안전기원제)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착공식에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윤정남 (주)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도·시의 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천억원(국비 560, 도비 1000, 시비 1100, 민자 4340)을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대 126만㎡(38만평)에 R&D 센터, 로봇전시관, 로봇시험장 등 국내 최대 로봇산업 공공시설(2,660억원)과 로봇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민간시설(4,340억원)을 건립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울트라건설(주)의 부도로 공정 13%에서 중단되어 좌초위기에 있었으나, '15년 국내 도급순위 3위인 (주)대우건설을 대체사업자로 영입하였다

지난 11월 18일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실시협약(9.23)의 도의회 통과로 사업재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이번에 안전 준공을 기원하며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착공식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성공을 염원하는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무재해기원 희망 풍선 날리기, 참석자와 함께하는 안전기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향후 일정은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토목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 1단계사업(공공부문 및 테마파크)은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사업(민간부문)은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 로봇테마파크와 국내 최대 로봇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1만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8천5백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가 있어 침체된 마산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규모 로봇 수요 공간 창출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도 기계융합산업과(O55-211-3233)

경남도, 전국 최초 지방기록원 건립 본격 추진

- ▶ (구)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 2017년에 개관
- ▶ 도 대표도서관과 함께 주민참여형 문화 시설로 운영

경남도는 서부청사로 이전한 (구)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 2017년 「경상남도기록원」을 개관한다.

기록 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에 단순히 생산, 보존만 하던 기록물 관리의 차원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들을 자원화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도는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을 위해 그동안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산하 기록관 벤치마킹 후 현재는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 진행 중이다.

2016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조직 구성을 완료한 후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경상남도기록원 건립개요

- 대 지 : 5,188.7㎡,
- 연 면 적 : 6,794.85㎡(지하1층, 지상5층)
- 사 업 비 : 10,694백만원
- 조직인원 : 14명
- 건립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향래 경남도 인사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립되는 「경상남도기록원」은 도와 시·군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통합 보존·관리하고 역사적, 문화적 학술 가치가 높은 도정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등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록문화 탐방, 역사기록 교육, 기록 백일장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주민 참여형 문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보다 훨씬 더 주민 친화적인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인사과(O55-211-3593)

2015년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 눈에 띄네 !

- ▶ 풍수해 등 재해예방대책 추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 전국 최우수
- ▶ 긴밀한 재난대응 민관협력 토대 마련, 민간참여 활성화 기대
- ▶ 도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라디오재난방송시대 활짝 열어

경남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출범된 지 1년을 넘긴 시점에 2015년은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지난 12월 16일(수)발표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4개 분야에 1,17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재해취약시설 2,772개소에 대한 점검·정비와 ‘14년 재해복구사업 702개 사업을 우수기 전에 준공 등 풍수해 재해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재난피해가 없었다.

또한, 도와 시군 방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400명)을 실시하고, 작년 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에 대비하여 읍면동사무소, 마을 경로당 등을 활용, 무더위 쉼터 5,148개소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 13,813명을 통해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안전처 주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TBN창원교통방송과 재난예방 홍보방송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매주 목요일 『TBN창원교통방송과 경상남도가 함께하는 안전한 경남, 행복한 경남』 라디오 재난예방 홍보방송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민관협력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상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획기적인 민관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날로 재난의 규모나 유형이 복잡·다양화되고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재난 예방 행동요령 미숙지로 인해 소중한 인명 피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재난안전 의식제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우, 산불, 화재 등 12개 주요 재난 유형에 대한 도민 행동요령을 담은 『재난 없는 행복한 경남』 교육용 만화 가이드북도 발간해 도내 초등학교 515곳과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우선적으로 배부했다.



■ 자료 : 도 재난대응과(O55-211-2813)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개발사업 추진

▶ 남해 미조항 앞 조도와 호도에 치유와 체험을 위한 휴양관광단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의 섬 19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2017년 까지 336억원(국비 100, 지방비136, 민자 100)의 사업비를 투입(사업시행자 남해군수) 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있는 조도, 호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와 휴양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남해군 미조면 일대를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특화된 친환경 해양관광 휴양단지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새가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 **조도(鳥島)**는 **치유와 체험**을 개발컨셉으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 쉼터 등을 설치하고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반면,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호도(虎島)**에는 **흥미와 역동**을 개발컨셉으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스카이워크(Sky Walk), 명상원, 전망대, 내부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민자사업으로 해양레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을 각각 조성하게 된다.

남해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도와 호도는 해안의 기암절벽과 은빛바다가 어우러져 치유와 휴양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시설을 조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누구나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 섬이라는 특수한 자연의 숨결 속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도와 호도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가족 단위의 새로운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섬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군에서는 이 사업지 인근의 다양한 관광지(상주해수욕장, 가천다랭이마을, 독일마을 등)와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도서낙도의 활력제공과 섬의 공동화를 예방하는 등 남해를 “환타지 아일랜드”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해양권발전지원과
(044-201-4554)

거제 고현항 새롭게 태어난다

경남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식이 지난 12월 11일 연초면 소오비 매립지에서 열렸다.

거제시에 따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에는 2021년까지 모두 6천965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개발 면적은 60만98㎡이며 서울 여의도 공원의 52%에 달하는 11만9천여㎡ 규모의 공원·녹지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해안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여객터미널, 마리나, 부두, 물양장 등 항만시설이 대폭 개선되거나 확충된다.

거제시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주거·상업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착공식은 사업시행자인 (주)거제빅아일랜드 PFV와 해양수산부, 거제시 주관으로 개최된다.

거제시는 사업이 민간투자로 시행되는 매립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환경, 재해, 교통 등에 대해 수차례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 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발에 반영하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노후된 항만시설이 개선되고 부족한 시 공원, 녹지, 주차공간과 문화시설이 확충되면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인 거제가 글로벌 친수(親水) 해양항만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055-639-3252)

양산시, 지방도 1051호선 어곡~에덴밸리 구간 개통

양산시는 일명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지방도 1051호선 어곡~에덴밸리 구간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29일 “양산시 자전거 연합회장배 랠리행사”에 맞추어 도로를 개통하였다.

이번에 도로가 개통된 지방도 1051호선 어곡~에덴밸리 구간은 지난 2008년 11월에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임직원이 야유회를 다녀오다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2011년 3월에는 창원시 문성대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명 “죽음의 도로”로 인식되어져 왔다.

양산시는 2013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비 60억 원, 지방비 50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지방도는 오르막차선으로 활용하고,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 길은 교량등을 건설하여 회전반경을 30m에서 99m로 확대하여 안전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사업구간인 지방도 1051호선은 양산시의 최대 관광지인 배내골과 신불산 정상에 있는 에덴밸리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주 통행로로 사업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통행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준 점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자료 : 양산시 도로과(O55-392-2742)

'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의 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15.12.28)를 거쳐 '16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그 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체 2,416개('15.1기준) 품셈 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 하였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 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5년도 표준품셈 개정내용		
	계	'15.8	'15.12
계	293	24	269
토 목	174	12	162
건 축	106	12	94
기계설비	13	-	13

(토목분야)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가설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야) 지붕공사와 흙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하였으며,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3,000, 16,000, 20,000 kcal에서 25,000, 30,000kcal를 추가·확대하는 등제품의 규격을 추가하여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0)

국토교통부, 고급 국가공간정보 3억건 무상개방

-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고급 부동산 공간정보 3억건이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된다.
- 국토교통부는 정부3.0의 공공데이터개방 중 민간의 상업적 활용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종합정보 개방을 본격화 한다고 지난 12월 28일 밝혔다.
- * 공사 협회 민간 산업체등에 설문조사 결과 ('14.8) 87.7% 활용 응답
- *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용도지역지구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 등 부동산 관련 속성정보와 공간정보
- 국토교통부는 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3억건 이상의 고품질 부동산종합정보 무상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연간 7천억으로 추산했다.

부동산개방DB, 11종 3.3억건

공간정보구축 건수	
토지임야정보	38,121,451
공유지연명정보	11,751,861
대지권등록정보	19,702,429
토지등기정보(누적)	204,113,960
행정구역정보	20,890
연속지적도형정보	38,341,021
도근점정보	955,449
심각보조점정보	39,153
심각점정보	7,137
용도지역지구정보	3,082,872
GIS건물통합	14,418,080

○ 11종 정보유형별 구분

속성정보 : 약 2.7억건

공간정보 : 약 0.6억건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을 고려하여 민간 수요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11종을 우선 개방 후 '16년 15종을 추가 개방한다. 향후 민간·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원천기관의 공간정보는 무상제공하고 개인 저작권이 있는 정보는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및 건축정보와 부동산종합정보의 융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한 원문 내려받기와 오픈API방식의 대용량 패키지 개방을 한다.
- 아울러 국가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개방 추진 중인 상권, 농·수·축산, 사회보장, 식의약품, 관세 등 36개 분야와의 공간정보 융합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간정보센터를 통해 확대 개방되는 66개 기관의 정보와 국가중점데이터와의 융합이 용이하도록 전문기관의 품질체계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1)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 지난 12월 29일(화)부터 시행,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되었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 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되었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되었다.

○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총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7)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차장,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하였다.

○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6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 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 금번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88올림픽 고속道, ‘광주-대구 고속도로’ 로 확장 개통

- ▶ 지난 12.22 함양산삼골휴게소에서 개통식, 사고 많은 도로에서 안전한 도로로
- 그간 ‘사고 많은 도로’라는 불명예가 있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舊 88올림픽선)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던 담양~성산 구간 143km를 22일 4차로로 확장 개통하였다”고 밝혔다.
- 개통식은 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 함양산삼골 휴게소에서 개최되었다.
-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08년 11월 확장공사에 착수하였다.
 - 본 고속도로는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8개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총 2조 1,349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형 국책사업이다.
- 과거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평균의 1.6배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 교통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다.

- 기존 88올림픽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3개소(남원, 지리산, 거창) 밖에 없었고, 휴게소 간격도 50km 넘어 매우 불편하였다.
 - 이에 따라 확장사업 과정에서는 휴게소를 2개소(강천산, 함양산삼골) 추가 설치하였고, 졸릴 때 쉬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도 5개소를 건설하여 휴게시설 간격을 25km 이내로 배치하였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특산물 단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밀착형 휴게소와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 통행권을 뺐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간에 사고 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광주-대구 고속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1)

“도로점용료 감면 · 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 지난 12월 22일부터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 (10~30%차등 → 조정10%)

-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 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 [도로법 개정·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09)

전자입찰제,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에 기여

▶ 지난 10개월간 총 낙찰금액 5,400억 원, 전자입찰제 도입 성공적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인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총 33,367건이 공고되었고, 이 중 17,350건이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은 약 5,400억 원에 달했다.

○ 지역별 입찰공고와 낙찰건수, 낙찰금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입찰공고 15,481건, 낙찰 7,818건, 낙찰금액 2,872억 원), 영남권(입찰공고 11,532건, 낙찰 6,363건, 낙찰금액 1,599억 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금액 659억 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금액 271억 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목적 분류별 낙찰금액(K-apt 전자입찰시스템 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수선 공사가 약 1,69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비 용역(약 633억 원), 청소 용역(약 43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발령번호 : 고시 제2015-1097호
- 일 자 : 2015. 12. 30.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사유 :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시행일자 : 2016. 3. 1.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

- 발령번호 : 고시 제2015-897호
- 일 자 : 2015. 12. 4.
- 구 분 : 제정
- 제정사유 :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
- 시행일자 : 2015. 12.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붙박이가구, 드레스룸은 외벽 및 욕실과 이격하여 배치하되, 배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제(안 제14조의3제3항)
- 나.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도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3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의견 수렴

1. 개정이유

동 지침 [별표2]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서는 공사 공종별로 설계단계시 실시하여야 하는 측량항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하천분야의 경우 설계 단계시 실시하여야 하는 측량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과업수행시 업무 혼선 초래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보완

2. 개정내용

□ 하천공사의 “측량항목” 수정(별표2 관련)

- [별표2]의 하천공사 설계단계시의 측량항목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상에서 정하는 측량항목에 부합토록 수정

공종	설계단계	측량항목	
		현 행	개 정
하천공사	기본설계	-하천의 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하천 개수공사 실시를 위한 측량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	-삼각측량, 수준측량, 지형측량(현황측량 또는 항공측량), 종횡단측량, 홍수흔적측량, 제방중심선(법선)측량 등
	실시설계	- 상 동	-삼각측량, 수준측량, 지형측량(현황측량 또는 항공측량), 종횡단측량, 제방중심선(법선)측량, 용지측량 등

□ 변경된 법률명칭 수정

- 「측량법」이 폐지('09.12)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4.6)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공급면적을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어, 공급면적을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9조, 제22조, 별표2, 별표4),
-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하되,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 이하로 공급(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관계 법령·조례·기술적 기준을 정보망을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 건축규정의 구축과 이를 운용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간의 협력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 상시적 관리 절차 마련(안 제22조제1·2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관보게재 요청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5~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함

다.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관련 절차 마련 (안 제 22조제7·8·9항 신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심의를 거친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
-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사용검사 신청 전 실시하는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모든 주택에 적용(안 제2조)
- 베이크 아웃(Bake-out) 기준 신설(안 별표2)
-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구체적 성능 기준 마련(안 별표3)

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외벽에 붙박이가구가 직접 닿는 경우에는 가구 내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박이 가구가 닿는 벽면과 천장에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설치(안 제11조)

3. 기타사항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별표 2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별표)

- 기술자 능력은 측량업체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40점)과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 생산액(10점)을 합하여 평가
-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과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를 합하여 평가
- 신인도는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과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을 합하여 평가
- 신용도는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재무상태(3점), 벌칙(2점)을 평가
- 교육이행실적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합하여 평가(2점)
- 감점 평가기준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점(-10점)

3. 기타사항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 신기술 개발자

- (주)포스코 건설
- 롯데건설(주)
- 계룡건설산업(주)
- (주)트라이포드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제 779 호
- 명 칭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 (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 기술분야 : 건축>마감>미장

□ 범위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 내용

-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자기 수평성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5년 제10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15. 12. 18(금), 14:00~17:00
- 장 소 : 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
- 참석인원 : 심의위원 19명(발주청 및 참여기술자 등 40명 정도)
- 심의안건 : 3건 【실시설계 적정성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10-01	진주시 (하수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실시설계)	조건부 채택
2015-10-02	통영시 (건설과)	통영 산양~세포간(지 1021호선) 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조건부 채택
2015-10-03	양산시 (하수과)	양산 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12월	계		66	120,288	114,430	5,858	4.86%
	공사	토목	29	85,795	81,595	4,200	4.89%
		건축	4	6,859	6,250	609	8.87%
		기타	12	20,233	19,572	661	3.27%
	용역		10	5,870	5,514	356	6.06%
	물품		11	1,531	1,499	32	2.02%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847

□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 검정시행 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 기 (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8회	1.8~1.14	1.31	3.17	3.21~3.24	4.23~5.2	5.20
	제109회	3.25~3.31	5.15	6.23	6.27~6.30	8.6~8.15	9.2
	제110회	7.1~7.7	7.30(토)	9.8	9.19~9.22	10.15~10.24	11.11
기능장	제59회	3.4~3.10	4.2(토)	4.14	4.18~4.21	5.21~6.3	6.10(1차) 6.24(2차)
	제60회	6.17~6.23	7.10	7.21	7.25~7.28	8.27~9.9	9.23(1차) 10.7(2차)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제1회	1.29~2.4	3.6	3.17	3.21~3.24	4.16~4.29	5.6(1차) 5.27(2차)
	제2회	4.1~4.7	5.8	5.19	5.30~6.2	6.25~7.8	7.15(1차) 8.5(2차)
	제3회	8.2~8.8	8.21	9.1	9.5~9.8	10.8~10.21	10.28(1차) 11.18(2차)
	제4회	9.2~9.8	10.1(토)	10.13	10.17~10.20	11.12~11.25	12.2(1차) 12.23(2차)
기능사	제1회	1.5~1.11	1.24	2.4	2.15~2.18	3.12~3.25	4.1(1차) 4.15(2차)
	제2회	3.4~3.10	4.2(토)	4.14	4.18~4.21	5.21~6.3	6.10(1차) 6.24(2차)
	제3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5.9~5.12	6.11~6.24	7.1(1차) 7.15(2차)
	제4회	6.17~6.23	7.10	7.21	7.25~7.28	8.27~9.9	9.23(1차) 10.7(2차)
	제5회	8.18~8.30 (13일간 CBT접수)	9.3~9.12 (1차)	시행당일	10.24~10.27	11.26~12.9	12.16(1차) 12.30(2차)
	9.20~9.30 (2차)						
	10.1~10.14 (3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건설협회 2016년 건설자재 수급전망 발표

-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6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 2016년은 '15년의 민간 주택수주 증가세가 확장되는 등 2016년에도 건설투자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 정부 SOC 예산의 전년도 대비 감소 및 공공기관 신청사 건립공사 완공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투자가 큰 폭 감소가 전망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있어 2016년 자재수급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자재별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5년 수급실적 및 '16년 수급전망】

품 목	단위	2014년 실적	2015년 실적		2016년 전망	
		수요량	수요량	전년대비	수요량	전년대비
레 미 콘	만m ³	13,640	14,940	9.5%	15,160	1.5%
철 근	만ton	1,002	1,086	8.4%	1,096	0.9%
시 멘 트	만ton	5,323	5,526	3.8%	5,475	-0.9%
골 재	만m ³	20,142	20,545	1.9%	21,086	2.6%
콘크리트파일	만ton	651	790	21.3%	785	-0.6%
합 판	만m ³	205	212	3.5%	217	2.1%
타 일	만m ²	13,144	13,930	6.0%	11,986	-14.0%
아 스 콘	만ton	1,600	1,550	-3.15%	1,500	-3.22%

- 건설자재 수급전망은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주요자재 관련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고 「2016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기술 및 자재 → 건설자재수급전망' 메뉴에서 2015년12월31일부터 내려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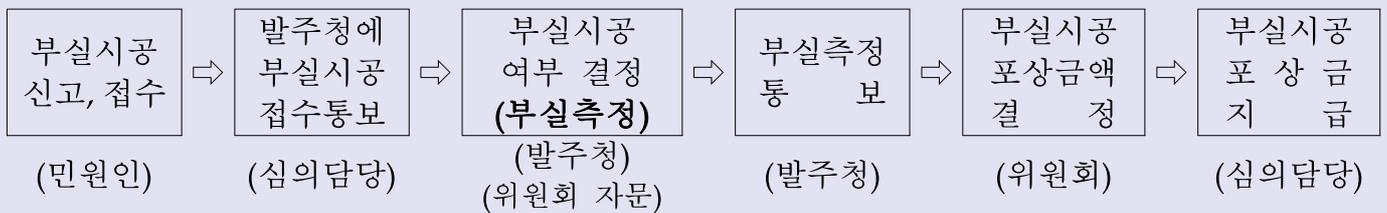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경상남도(www.gsnd.net) 및 건설정보(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도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

II. 처리절차



III.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상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5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3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I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6)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운영 안내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전담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안전관리계획서를 책자 형태로 제출받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와 검토업무 간소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¹⁾” 마련하고, 2015. 12. 1부터는 본 시스템으로 제출²⁾받아 검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안내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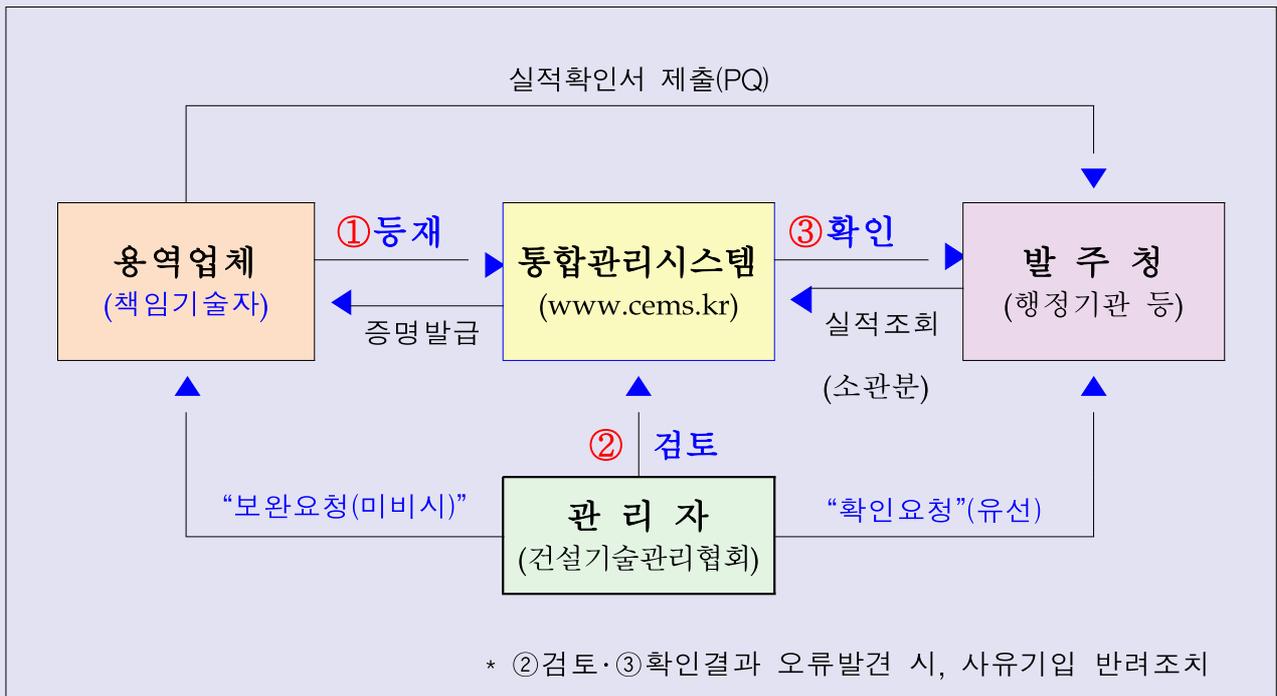
2) 기존의 책자로 접수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병행 시행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
(031-910-4042)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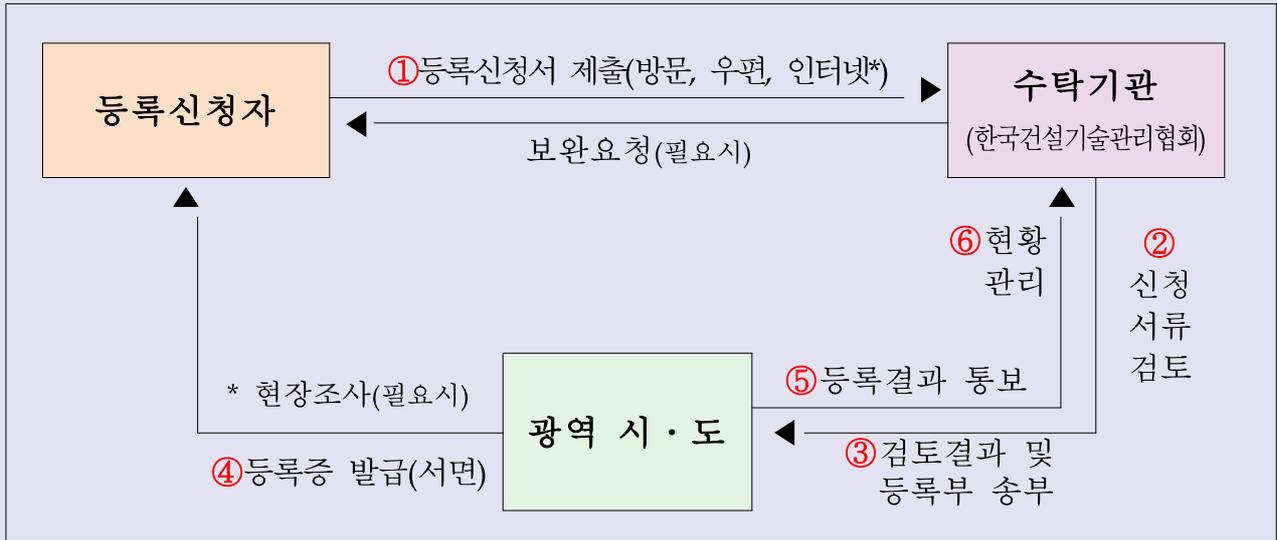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O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kim0929@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